

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·전남지부가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로 각각 분리됐다. 새롭게 출범한 광주지부는 지난 6일 산하에 '함께한걸음센터'를 개소했다. /안재영 기자

“마약 청정도시 회복 위해 노력할 것”

●함께한걸음센터 개소식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 산하...전남과 분리 입원·외래·심리 치료 등 연계·제공...사회 복귀 지원도

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가 ‘마약 없는 광주’라는 지역사회의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.”

국내 마약류 문제 해결의 핵심 기관인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광주·전남지부가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로 각각 분리됐다.

새롭게 출범한 광주지부는 산하에 함께한걸음센터를 개소, 지역 내 마약

중독자에게 입원·외래·심리 치료 등을 연계·제공하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.

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는 지난 6일 오후 2시 광주 서구 상무대로 11065층에 새롭게 마련한 사무실에서 이 전 및 함께한걸음센터 개소식을 가졌다.

이날 행사에는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과 조윤정 조국혁신당

최고위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.

박춘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장은 개회사를 통해 “광주·전남지부가 분리된 것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더욱 확대된 역할을 하기 위함”이라며 “오늘 개소식이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더 큰 변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서국진 이사장은 “약사들의 후원으로 1992년 설립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 예방과 중독자 사회 재통합을 전담하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전문 단체로 성장했다”며 “그동안 광주·전남을 통한 운영에 온 임직원 모두 고생 많으셨다”고 격려했다.

이어 서 이사장은 “분리된 광주지부는 모든 역량을 지역에 집중해주시길

부탁드린다”며 “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‘마약 청정국 대한민국’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내·외빈 축사 후에는 기관 소개 및 사업 안내와 커팅식 등이 이어졌고, 이날부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지부는 독립 운영에 들어갔다.

강미량 함께한걸음센터장은 “상담 및 재활 인력을 대폭 강화하면서 공간 진행해왔던 프로그램을 확대·심화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수행하게 됐다”며 “광주는 이미 마약류 청정지역을 벗어났지만, 청정도시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광주시청, 광주시교육청, 광주경찰청, 광주검찰청, 광주보호관찰소 등 유관 기관과 긴밀히 연계하고 또 연대하겠다”고 밝혔다. /안재영 기자

오늘의 날씨

☀ 해돋이 06:11 해질 18:48
🌙 달돋이 11:41 달짐 21:41

인천	23/33	서울	23/34	대전	22/30	강릉	22/30
전주	22/34	대구	21/33	광주	22/35	부산	22/32
목포	24/32	제주	27/32	여수	25/32	도도	25/27
흑산도	25/31	제주	27/32	여수	25/32	도도	25/27

광주 비온뒤 맑음	22/35
목포 비온뒤 맑음	24/32
여수 맑음	25/32
나주 비온뒤 맑음	22/35
완도 맑음	26/31
구례 비온뒤 맑음	21/33
강진 맑음	23/34
해남 맑음	24/34
장성 비온뒤 맑음	22/35
보성 맑음	23/33
순천 맑음	22/34
영광 맑음	23/34
진도 비온뒤 맑음	25/32
흑산도 맑음	25/31
고흥 맑음	24/32

●생활정보지수
 🍷 나들이 50 🧺 빨래 60 🚗 세차 70 🏃 운동 60
 자외선 차단제 필수 야외 건조 좋아요 세차하기 좋은 날 수분섭취 충분히

●바다 날씨

위치	오전/파고(m)	오후/파고(m)
서해 앞바다	0.5-0.5	0.5-0.5
남해 앞바다	0.5-1.0	0.5-1.0
남해 서부 앞바다	0.5-1.5	0.5-1.5
남해 서부 앞바다(동)	0.5-1.5	0.5-1.5
남해 서부 앞바다(서)	0.5-1.5	0.5-1.5

●물때

지역	만조	간조
목포	05:20	10:32
여수	12:11	05:40
녹동	00:22	06:37
녹동	12:56	19:22

●전국 날씨

날짜	광주	서울	강릉	대구	제주
9월 10일(화)	☀ (24/38)	☀ (23/34)	☀ (24/32)	☁ (24/36)	☀ (26/34)
11일(수)	☀ (23/26)	☀ (26/35)	☁ (23/30)	☁ (24/33)	☁ (26/32)
12일(목)	☀ (23/33)	☀ (25/33)	☁ (23/27)	☁ (24/32)	☁ (25/33)

▶날씨안내 : 국번없이 131

市교육청, 학교부적응 위기 중학생 지원 강화

‘대안교육 과정’ 운영 Wee스쿨 용연학교서 최근 협의회 개최

광주시교육청이 학교 부적응 중학생 지원을 강화한다. 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용

연학교에서 ‘중학교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협의회’를 개최했다. 시교육청 Wee스쿨인 용연학교는 지

난 2008년 중학교 과정 장기위탁 대안 학교로 설립됐다. 학교부적응 중학생을 위한 상담활동과 인성·체육활동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. 이번 협의회는 김태섭 용연학교 교장

“교과서 속 여순사건 ‘반란’ 표현 삭제”

전남도교육청, 촉구

전남도교육청이 최근 공개된 ‘2022개정 교육과정’ 역사 교과서 중 일부 출판

사가 ‘여수·순천 10·19사건 희생자’들을 ‘반란’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. 전남도교육청은 8일 “이 표현은 지

난 2021년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‘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’(약칭 여순사건법)의 정의에 맞지 않다”며 “이는 우리 사회의 화합과 진실 추구를 저해할 수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태”라고 지적했다. /김다이지

및 교직원, 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장, 엄갑훈 시교육청 체육예술인성교육과장 등 대안교육 정책을 추진하는 실무부서 담당자들이 참석해 ▲대안교육 추진 방향 ▲중학교 단계 위기 학생 지원에 대한 현안 공유 ▲대안교육 접근성 개선 ▲중학교 위기학생 단기 위탁형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논의했다.

용연학교 관계자는 “이번 협의회는 대안교육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 강화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”며 “중학교 위기 학생의 계속교육 및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김진구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 원장은 “용연학교를 포함한 대안교육의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상시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현장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겠다”고 밝혔다. /김다이지

은봉희 남구의원 ‘걷는 길 ...’ 개정조례안 발의

신종혁 ‘사회복지사 처우 개선’ 발의

은봉희(사진) 광주 남구의회원이 대표 발의한 ‘남구 걷는 길 및 관리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이 지난 6일 제306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.

8일 남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남구에 조성된 맨발산책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대책 마련과 시설물 등의 유지·보수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이용하는 구민의 편의 및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됐다.

주요 내용은 ▲이용자의 안전대책 마련 관련 조항 신설 ▲맨발걷기 활성

화 지원사업 일부 신설 등이다. 이와 함께 신종혁 남구의회원이 대표 발의한 ‘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원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’도 같은 날 사회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.

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이 복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신체·언어적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위법령에서 관련 근거를 규정한 사항을 반영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안됐다. /주성학 기자

2024 Art Bank ‘예술을 선물합니다’

2024. 9. 27. (토) - 10. 6. (일) | 광주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 **작품판매전**

들꽃에서 피어난 미소 가득한 삶을 그리는 작가

다양하고 자연스러운 꽃의 색깔과 그것이 어우러져 빛어내는 색깔, 머릿속에 남아 있는 잔상들은 하나 둘씩 풀어내며 풀꽃들을 해석해 그려내는 작업을 통해 풀꽃들은 한 음슴의 색 덩어리가 되어 화면에 화려하게 펼쳐진다.

들녘, 흠뻑 젖은 풀꽃들의 색깔들, 늘 곁에 있던 꽃과 식물들에게 그렇게 신선한 이름이 있었는지, 그렇게 섬세한 색들이 숨겨져 있었는지, 모양이 예쁘다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행복과 따스함을 안겨주어 작업이 진행될수록 새로웠고, 신선했다. 손톱보다도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작은 꽃이지만, 모두가 다 생생하다. 양쪽맛은 모습이 그렇게 빼어 날 수가 없었다.

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마음에 꼭 들어간다.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.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. 너도 그렇다. 하지만 누군가의 얼굴에 미소를 짓게 하는 풀꽃, 들꽃들의 모습에서 삶의 보람이 무엇인지를 깨닫는다.

엄순영 작가

개인전 6회(광주, 담양, 화순) | 부스전 3회 | 아트페어 10회(서울, 전주, 부산, 광주, 여수, 싱가포르)
 단체전 150여회(서울, 부산, 광주, 대구, 전주, 등)
 심사위원 광주광역시 미술대전, 전라남도 미술대전, 배동신미술대전 역임

주최 | **광주매일신문·광주매일 TV** | 문의 | 광주매일신문 062) 650-2079